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의 승리

(시편 76:1-12)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시편 74편이 세상에 있는 폭력과 불의를 하나님이 막아달라는 요청이었다면 75편은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 76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완전히 멸하신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시에서 하나님은 심판주로 보였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시편 75편에서 오는 승리를 노래했다면 본 시는 성취된 승리를 노래합니다.

1. 하나님은 어디에 알려지셨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 지셨도다”(1절)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본 시를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이므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다’는 말씀은 진리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거나 후에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요 14:9).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계시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토론할 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행 17:22-23)로 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심을 말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본 시의 주제는 참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그의 진노는 자신과 자기 백성의 원수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연(4-10절)은 본 시의 본론으로 첫째, 이스라엘의 큰 원수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심을 묘사하고 둘째, 승리가 마지막 심판 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군대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물리쳐 주었습니다(왕하 18-19장, 사 36-37장).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모든 도성과 나라들이 이미 자기 손에 들어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자기들 신이 있었으나 그들의 신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

습니다.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모든 사실을 알리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어 산헤립의 군대가 패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왕하 19:35-36).

3. 앗시리아 패망에 대한 반향

일반적으로 앗수르의 패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면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7-10절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합니다.

① 하나님만 경외의 대상이시다(7절).

하나님은 인간이 대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고 그의 심판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무시합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②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자가 없다(8절).

마지막 심판날에 죄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롬 3:19)고 말씀했습니다.

③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진노에 자비를 섞으신다(9절).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의 한 면이며 또 다른 면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온유하고 고난 받은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④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영광을 받으신다(10절).

마지막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 받을 사람에게는 능력과 의와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할 것입니다. 마지막 연은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상은 십계명에서 처음 나옵니다.

둘째, ‘사방에 있는 모든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이것은 시편 2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왕도 통치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것이고 시온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그의 자비를 힘입고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모여서 기도하자!

복음화 된 통일조국 실현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 금식기도대회”

- 12월6일(목) 오전10시 서울교회 본당에서 -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탄원하는 금식기도 대회가 12월6일(목) 오전 10시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거짓평화 공세를 펼치면서 적화통일의 야욕을 원색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한미 동맹은 점점 와해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중국 내 탈북자들을 전원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기로 하는 등, 국내외 정세는 계속 어두운 소식만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와중에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려 있는 금년 12월 대선과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좌파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결연한 자세로 목회자들이 먼저 일어나, 장로들과 여전도회 및 청년 지도자들과 함께

허리를 졸라매고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와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받고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된다. 공산주의의 허상과 세속주의의 망상,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 기도대회에, 나라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초청한다.

우리들에게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모든 성도들이 의와 평강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바란다. 이번 대회는 국내의 70인 목회자회의와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다. 또한 6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점심 한끼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기 바란다.

2008년 섬김위원 임명

서리집사, 교구일꾼, 섬김위원 임명

2008년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에서 섬김의 도리를 다 할 섬김위원 임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오늘은 서리집사와 교구일꾼,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오늘 임명을 받는 이들의 명단은 후보에 간지로 삽입되어 있다. 2008년 섬김위원으로 임명을 받는 모든 이들은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다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다음 주일은 찬양대를 임명하게 된다.

2008년 목회정책협의회

12월 7일(금) - 802호

2008년을 준비하는 목회정책협의회가 7일(금) 교회에서 열린다. 목회정책협의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섬기는 교역자와 당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며 상호간에 조정을 하여 더욱 발전되고 은혜가 되도록 하는 자리로 매년 연말에 모임을 갖고 있으며 올해는 교회에서 열린다.

12월 7일 금요일 12시에 모여 식사후 1시부터 802호에서 갖는다.

19기 찬양대양성반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9기 찬양대양성반이 7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한다.

강경욱 기수정 김숙자 김정희 양순희 유안순 이경숙 이규창 이예은 이우성 이정우 장희선 최봉희 한선현 홍정란

교구총회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 2층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각 교구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게 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교구 총회를 갖는다. 오늘 주일3부 예배를 마친 후 본당2층에서 개최한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오늘 교구총회에 참여하여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제1기 설교사역 도고 세미나

12월 9일~30일, 주일 오후 3:30 609호

제1기 설교사역 도고 세미나가 열린다. 이종윤 위임목사의 설교사역을 위해 도고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여야 한다. 강의내용은 도고사역의 의의, 도고의 특권과 의무, 도고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고, 설교사역 도고의 중요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료는 12월 30일(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하게 되며 강사로는 정수길 목사가 서게 된다.

12월1차 성경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13독> (12교구) 김경철 장로
- <필사> (12교구) 이상호 성도. 이병헌 집사
- <6독> (8교구) 김인식 권사 <5독> (7교구) 채복순 권사 (11교구)김해수 집사
- <3독> (1교구)고석규 장로 (8교구)강애자 권사 (9교구)조명녀 권사 (13교구)한선현 장로
- <2독> (1교구)김영옥 집사 (2교구)안창희 집사 정봉금 권사 (3교구)정병무 장로 원용범 집사 정소영 성도 (5교구)유우자 권사 (6교구)오은이 집사 (8교구)송인순 권사 이봉선 권사 (9교구) 이운우 성도 (13교구)방호철 장로 주화인 권사
- <1독> (1교구)김경희 집사 김수호 권사 김영호 선교사 노제현 집사 박성신 성도 송경옥 집사 송미라 집사 송영미 집사 유명희 집사 유상득 성도 임미경 집사 조명옥 권사 홍순석 집사 홍영미 성도 (2교구)권영월 집사 김영현 집사 이갑연 집사 이선경 성도 (3교구)강윤숙 권사 고인진 집사 김명심 권사 김명심 성도 김영희 권사 박광옥 집사 박미현 성도 박정순 집사 이영희1 권사 임현영 성도 한인진 집사 황정아 집사 (4교구)김광민 집사 김규태 집사 박미혜 권사 이현주 집사 장연순 권사 (5교구)이승래 집사 이영희 권사 (6교구)권장철 집사 유종숙 집사 이택빈 집사 홍은미 집사 황보추자 권사 (7교구)김하순 집사 (8교구)박영숙 집사 (9교구)곽숙 권사 서춘식 집사 전용택 집사 (10교구)김은순 집사 최길옥 권사 (11교구)김해수 집사 유숙인 집사 이경희2 권사 이민화 권사 (12교구)권희순 집사 김경중 집사 김진영 권사 오가연 집사 이상호 성도 이인수 집사 주영도 집사 채경희 권사 (13교구)권은주 권사 김경희 성도 남상경 권사 남현주 집사 박길희 집사 선헌영 성도 성순란 집사 송인숙 집사 안현남 성도 이강인 성도 이명옥 집사 이정민 집사 이정아 집사 정미자 성도 주완숙 집사 최봉봉 집사 최봉희 집사 한금수 집사 허태호 집사 (14교구)김은혜 성도 박춘자 집사 윤미란 성도 정순이 성도 최숙자 권사 (대화부) 김광통 집사 이인영 차신영 (청년부) 안승민 오세창 (초등부)임수현

연말 연시 행사

- 12월 2일(주일) 2008년 서리집사, 교구일꾼, 섬김위원 임명 교구총회(3부 예배 후)
- 3일(월) 전도위원회 총회
- 4일(화) 재정위원회, 스데반회 총회
- 5일(수) 은빛 찬양대, 시온찬양대 임명 권사회(살롬, 제 1, 제 2)총회
- 6일(목)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 금식기도대회
- 7일(금) 목회정책 협의회
- 9일(주일) 찬양대원 임명, 찬양대원 헌신예배
- 15일(토) 제3차 새가족 환영회
- 16일(주일) 교사임명 성탄축하 찬양(할렐루야)
- 18일(화) 교사 총회
- 19일(수) 세례식
- 24일(월) 성탄전야 축하예배 (교육1국, 사랑부)
- 25일(화) 성탄절 새벽예배 (5시, 베들레헴) 성탄 감사예배 1부: 9시 2부: 11시
- 30일(주일) 교회학교 졸업식, 은퇴식, 장로안식년, 전도상 시상식 주간성경공부 시상식 특별 제직회(예결산) ***
- 2008년 1월1일(화) 0시에배(송구영신)
- 6일(주일) 성찬식, 공동의회(예결산) 순결서약식
- 7일(월)~12일(토) 청지기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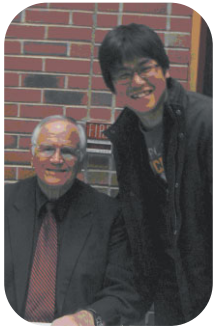
청년 1,2부 오늘부터 분리

토요일: 오후 6-7시 601호 청년 1,2부(연합)
 주일: 오후 3:20-4:50 603호(청년 1부), 601호(청년 2부) Group Bible Study

청년부가 오늘부터 1,2부로 나뉘어 모임을 갖는다. 1978년 이전(30세)에 출생한 회원은 청년 1부, 1979년부터 출생한 회원은 청년2부에 소속하게 된다. 앞으로 청년 1, 2부의 모임은 토요일모임은 오후 6시에 601호에서 청년 1,2부 연합으로 모이고, 주일모임은 주일 오후3시20분에 603호(청년1부), 601호(청년2부)에서 Group Bible Study로 모이게 된다.

교회 설립 16주년을 축하합니다

Soli Deo Gloria 서울교회



노재균 성도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 모두 안녕하세요?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에서 서울교회 창립 16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교육은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부에서 학문적으로만 신학을 공부했던 저에게는 새롭고 또 은혜로운 경험입니다. 특별히 이곳의 한인 신학생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열정(한인들을 주로 볼 수 있는 곳이 도서관입니다.)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는 한인 커뮤니티가 새벽기도회를 시작해서 영적인 흐름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학기도 채 끝내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께서 저에게 받게 하실 훈련과 요즘 들어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신실하게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최선을 다해 찾아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실 때 경건한 삶, 학문적 열정과 지혜,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최요섭 성도



살롱, 서울교회 설립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훈련 받으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신뢰하며, 그분을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21세기에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한국교회는 주님의 대명에 얼마나 잘 부응해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21세기에 한국교회가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아시아의 제사장나라라는 커다란 과제를 앞두고 반드시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는 동안 칼빈주의적 역사관 및 세계관을 잘 정립하여 이후의 과정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복음화 된 통일조국과 21세기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에 비전으로 서울교회와 동역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서울교회 설립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Soli Deo Gloria!!! 서울교회

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들 잘 키우고 아파 트평수 넓히고 자동차크기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강남에 등지를 틀 정도로 안정은 찾았지만 내 맘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삶이 공허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원초적 질문을 나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나는 삶이 무기력하였고,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직장에서 일본 동경으로 근무 발령을 받아서 그곳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생활 3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교회에 다니길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넘름하게 생긴 서울교회에 새벽예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자반에서 등록을 하고 8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새신자 반 첫날에 "난 구원을 받았는데..." 하는 교만이 싹텄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있다가없다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방금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깊게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의 사연을 되돌아보면 볼수록 죄 투성이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죄의 삶이 생각이 나면 날수록 삶이 자신감 없고, 주눅이 들어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랫동안 뉴스 사건 사고 현장엘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화재현장 촬영을 나가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길 바랬고, 사고 현장

나의 하나님



새로운 삶의 버전

유혁근 성도 (1교구)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은 더욱더 자극적이고 생생한 화면을 생각해냈고, 시위 현장엘 가면 걸은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면서 특종을 바라며 내 영광을 바랬고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맘속에 악독한 악한 영들이 내 삶을 파괴하고 방황하게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죄들을 값없이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출퇴근 길에는 8주간의 성경요절을 외웠습니다. 나는 정말 외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8주간의 성경 암송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외워도 외워도 완벽히 외워지지

않아서 주일만 되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중얼중얼 외우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중얼중얼~자투리 시간이 나면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회사 특성상 잦은 회식자리도 빠져가면서 말씀을 듣다보니 동료들로부터 일본 다녀오더니 이상하게 변했다고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만나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매일 일에 집중하는 시간 이외에는 예수님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어느덧 내 맘에 기쁨이 넘쳐흐릅니다. 역에서 빠져나와 회사까지 가는 무거웠던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여의도의 바람이며 나무며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예배시간에 찬송가 208장을 부를 때 눈물이 났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새사람 되고..." 가끔 아이들 교육 문제와...회사에 적응문제를 고민하다 보니...침체와 좌절이 옵니다. 그럴 때 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성경구절을 암송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서울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굳건히 뿌리내리고, 우리 가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가정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삶이 기쁩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하프타임을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시민양성-사랑부

찬양하는 천사들!

지난 11월18일(주), 사랑부에서는 잊을 수 없는 주일이 있었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의 <제1회 천사들의 음악회>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핸드벨의 창단을 시작으로 기타부, 벨플레이트, 멜로디언, 리코더 등 각종 악기들이 더하여져 드디어 제1회 음악회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된 음악회가 핸드벨, 벨플레이트 연주, 피아노 독주, 하모니카 연주, 시낭송, 합창, 찬양율동, 기타연주, 리코더, 멜로디언, 벨플레이트 합주 등 순



서 순서를 지나는 동안 저희 사랑부 선생님들은 목이 메어 말을 할 수도, 두 볼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음악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드릴 가을 단풍잎을 이용한 예쁜 선물도 준비하고, 엽서도

만들고, 큰 모형 십자가에 손도장도 찍어 전시 작품을 만들었고 매주 토요일과 주일엔 음악회 연습을 하는 등, 모두 모두 힘들고 고단했지만 준비하는 동안 내내 즐거웠고 기뻐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모르는 친구들을 색깔

로 음계를 구분케 하고 몸이 약해 쉽게 지치는 친구들을 격려해가며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나아가며 연습한 결실을 여러 성도님들과 내 자식이 잘 할 수 있을까 염려하던 부모님들 앞에서 너무도 자랑스럽게 옆 사람과 화음을 맞추고 손동작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귀와 눈에는 서툴고 미흡할지라도 음악회에 참석했던 우리 모두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기쁨을 알기에 그 어떤 연주회보다도 그 어떤 찬양보다도 더 훌륭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회를 통해 좀 더 커다란 기쁨을 주는 사랑부친구들이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진의 집사(사랑부 교사)

특별찬양

오늘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임미선 선생의 찬양으로 준비된다. 임미선 선생은 연세대학교와 미국 U. C. L. A.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국립합창단 미국 순회공연 시 초청 독창자로 활약 하는 등 많은 연주회와 독창회 프로그램을 가졌다.

오늘 저녁에는 "주 음성 외에는"을 비롯한 세곡을 구회정 씨의 반주로 찬양 드린다. 현재 연세대학교와 숭실 대학에 출강 중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일(월) 웨스트민스터 신대원 한국동문화 임원회를 소집한다.
- 득녀 : 노영환 흥은경 성도(11교구, 조정욱 권사 딸) 가정
- 득남 : 박전철 김지연 성도(10교구 정현승 권사 딸) 가정
- 사무실 이전 : 김재근 집사(10교구), (주) KINGSTEC, 강남구 도곡2동 467-6 대림아크로텔 C동 2311호, T.02)3462-0273
- 이사 : 이겸선 집사 이진영 성도(9교구), 성동구 마장동 818 현대아파트 109동 1801호, T.02)2291-5473
- 주간식당 봉사 : 마리아전도회(12.2)
- 금주의 식사 : 김상식 성도 이순례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주일 국가고시 금지법안 발의

국회에서 기독교인들 발의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기다려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주일에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만물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라하신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며 대한민국 국가 설립 후 수십 년 동안 이를 위해 쉽 없이 기도해오던 우리 개교회들의 주요 기도 과제였다. 그러나 이 사안이 마침내 기도의 열매를 맺어 결실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11월13일 이상경 의원 외 여야 기독교인들이 '주일 국가고시 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의뢰 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37조와 지방공무원법 37조 시험 공고의 란 ①항 말미에 '이 경우 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이 아닌 요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6월에 검정고시 응시

자 9,780명을 대상으로 일요일과 평일 시험 치르는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일요일 시험 선호자는 39.5%에 불과한 반면, 평일 선호자는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일요일 시험 선호자는 18%인 반면 평일 선호자는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국가시험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치르는 것을 압도적인 차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일요일에 국가시험을 치르는 것은 기독교인 인재등용을 제한시키는 것이므로 평등권에 있어 기독교인 인권에 배치되는 것이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이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기독교인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법안 개정안 통과되도록 모든 기독교인들의 지속적인 기도 요청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 금식기도회(12월6일)은혜롭게 준비되도록
2. 2008년 섬김위원으로 임명된 이들에게 성령충만, 은혜충만토록
3. 2007년도 승리로 마무리 하도록
4. 복음화 된 통일조국 성취되도록

교회오시는 길

